

<2017년 6월 24일 서울시 7급 인국시 ㉠책형 총평>

[난이도]

상(4) : 중(3) : 하(13)의 비율로 2016년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를 반영할 때 75점 전후가 합격선이 될 것이다.

[문항 특징]

순서 나열(5문항), 가부 선택(4문항), 인물(4문항)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2016년에는 시기 4문항, 제도사가 4문항이 출제되었다.] 익숙한 주제가 다수였으나 선지 구성이 지엽적이고 까다롭게 제시되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을 묻는 문제, 『별건곤(別乾坤)』이 발행된 시기의 시대상을 확인하는 문제는 선지와 지문 구성이 상당히 낮설었다.

[문항 분석]

전근대(13문항) : 근·현대(7문항) 비율로 2016년 시험에 비해 근·현대 파트에서 1문항이 적게 출제되었다. 전근대에서 정치(6) : 문화사(6) : 발해 통합(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경제, 사회사 문항이 아예 출제되지 않았다. 근·현대사는 근대 사회의 전개(2) :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2) : 현대 사회의 발전(3)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삼국 시대	• 대외 관계의 변화			• 불교의 특징 • 375 ~ 545 ~ 771년의 사실
남·북국 시대	• 신문왕	• 발해의 정치·경제·문화		
고려 시대	• 최씨 무신 정권			• 균여
조선 전기	• 여말선초의 사건 • 세조의 업적			• 궁궐 • 조식
조선 후기	• 대외 관계			
근대 사회의 전개	• 대한제국 / 베베르·고무라 각서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 1926년의 상황 /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 단체			
현대 사회의 발전	• 좌우합작 위원회 / 4·19 혁명 전후의 상황 / 현대의 사건 전개			
통합	• 조선의 저서			

[학습 방향]

공무원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 학습이다. 더불어 학습 방식은 암기를 통한 이해이다. 문제가 대부분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꼼꼼한 기본 개념 학습을 진행하고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는 학습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문제 풀이 학습 또한 개념 학습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다. ‘세밀한 기본 개념 학습, 기출 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 반복하는 개념 확인’ 이것이 공무원 합격의 정도(正道)이다.

<2017년 6월 24일 서울시 7급 인국시 ㉠책형 해설>

01. 고려 말 ~ 조선 초의 시건 전개

㉠ 위화도 회군은 1388년, ㉡ 정몽주 암살은 1392년 4월, ㉢ 공양왕 폐위는 1392년 7월, ㉣ 과전법의 실시는 1391년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이 된다.

【정답】 ③

02. 대한제국 시기의 활동

㉠ 1899년 법규교정소에서 작성된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명시하고 전제 정치와 황제권이 무한함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군대 통수권·입법권·행정권·사법권·외교권 등을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였다. ㉡ 대한제국의 양전(광무 양전)은 양지아문에서 1899년 1월부터 1901년까지 아산군 등 124개 군의 양전을 시행하였고, 1901년 설치된 지계아문에서 양지아문의 양전 사업을 계승하여 94개 군에서 양전을 시행하고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 지계(地契)를 발급하였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광무 양전은 전국 군의 2/3 정도 되는 218개 군의 조사를 마친 시점에서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1904년)하면서 무산되었다. ㉢ 1900년에 대한제국은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였고, 파리 만국 박람회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원산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따라 1880년에 개항되었다. 목포는 1897년에, 군산은 부산, 원산, 제물포, 경흥, 목포, 진남포에 이어 일곱 번째로 1899년 5월 1일에 개항되었다.

【정답】 ③

03. 1960년 4·19혁명 전후 정치·사회적 상황

㉠ 4·19혁명 이후의 혁신 정당 세력은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등 세 개 파벌로 분열되어 5대 총선인 1960년 7·29 총선에 임하였다. “이것저것 다 썩었다, 혁신밖에 살 길 없다.”와 “보수하다 이 꼴 됐다. 혁신해서 바로 잡자.” 등의 구호를 내건 혁신계는 민의원 4명, 참의원 3명 당선에 그쳐 정치적으로 약진에 실패하였다. 더불어 총선 4개월 이후인 1960년 12월에 실시된 각종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혁신계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 7·29 총선 이후 노동자·농민 등 기층 대중 운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 운동도 초기의 계몽 운동·학원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벗어나 1960년 11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창립을 계기로 통일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답】 ①

04. 균여(923 ~ 973)의 활동

‘귀법사의 주지, 북악파와 남악파의 통합, 화엄종파의 분쟁 종식’ 등을 통해 균여에 대한 설명임을 파악할 수 있다. ㉠ 균여는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융합하려는 성상융회(性相融會)의 수행법을 주장하였다. ㉡ 균여는 향가 형식의 불교 찬가인 보현십종원왕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의천, ㉣ 제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05. 베베르·고무라 각서

1896년 5월 14일에 체결된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아관파천을 승인하여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우위권 확인, 을미사변의 일본 책임 인정, 주한 일본군의 감축과 러시아 군대의 조선 진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관파천 이후 수세에 몰린 일본의 외교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1884년 7월의 상황, ② 1884년 12월의 제1차 조·러 비밀협약의 추진, ④ 1905년 7월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8월의 제2차 영일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베베르·고무라 각서와는 무관한 사실이다. **【정답】 ③**

06. 최씨 무신정권 시기의 상황

최씨 정권의 유지에 있어 문신들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우선 재상, 즉 재추는 최씨 집권기에 들어와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였다. 최충헌 정권 이전에는 중방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였는데, 최충헌과 최이(우)는 중방을 배제시키고 재추들만의 합의에 의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재추회의는 최씨에 의해 소집되었고 그의 사저(私邸)에서 국정을 논의한 만큼 최씨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③ 최충헌과 최이(우)는 각각 진강후(晋康侯)와 진양후(晋陽侯, 후에 晋陽公)에 봉작되고 각각 흥녕부[興寧府, 후에 진강부(晋康府)], 진양부(晋陽府)와 같은 부(府)를 설치하게 되는데 부(府)는 왕자, 왕비, 공주와 봉작받은 중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법제 기관이었다. ④ 『동국이상국집』에는 1234년 『상정고금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답】 ②

07. 삼국의 불교

신라는 불교의 수용과 공인은 늦었지만 공인 이후 가장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진흥왕 대의 교단 정리, 전륜성왕 자처와 황룡사의 건립(569년), 진평왕 대의 진종설 주장, 선덕여왕 대의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643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신라에서는 8세기 후반 이후 현세구복적 성격이 강한 밀교가 성행하였다.

① 보덕은 도교를 장려하는 연개소문과 맞서다 백제로 내려가 경북사에서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② 성왕 때 접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져와 번역하였고 일본의 율종에도 영향을 주었다. ④ 화랑도는 미륵신앙과 관련이 깊다.

【정답】 ③

08. 조식(1501 ~ 1572)의 활동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 경(敬)과 의(義) 중시 등을 통해 조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식은 노장 사상에 비교적 포용적이었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으며, 절의와 기개를 중시하였다. 더불어 조식의 사상은 북인의 성리학적 성향에 계승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왜란 중에 의병장으로 봉기하였다.

② 고봉 기대승(1527 ~ 1572), ③ 율곡 이이(1536 ~ 1584), ④ 퇴계 이황(1501 ~ 1570)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09. 삼국 시대의 대외관계

㉠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 ~ 375) 때인 371년, ㉡ 고구려 광개토대왕(재위 391 ~ 413) 때인 400년, ㉢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 ~ 491) 때인 475년, ㉣ 백제 동성왕(재위 479 ~ 501) 때인 493년의 사실이다.

【정답】 ①

10. 1926년 ~ 1934년의 상황

『별건곤(別乾坤)』은 1926년 11월에 창간된 대중 잡지로 1934년 8월 통권 74호로 종간되었다. 『별건곤(別乾坤)』은 1926년 8월 『개벽(開闢)』이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폐간 당하자 그 대신 내놓은 잡지이나, 『개벽(開闢)』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취미와 실익을 위주로 한 대중 잡지였다. ② 대한천일은행

(1899~), 한성은행(1897~)은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위축되었고 조선은행(1896~)은 1901년 경영난으로 폐쇄되었다.

① 『신여성(新女性)』은 1923년 9월에 창간되어 1926년 10월 휴간했다가, 1931년 1월 속간하여 1934년 4월 4일 통권 38호까지 간행했다. 내용은 여성들을 위한 교양, 계몽을 촉구하는 논문·시·소설·수필·아동문학 외에, 취미 기사로 분류될 잡보성 성격의 생활 기사, 여학생·모던걸 관련 유행과 사회적 이슈, 대중문화와 생활 개선에 관한 각종 담론 등 근대 신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이슈를 포괄하였다. 『삼천리(三千里)』는 1929년 6월 12일 자로 창간되어, 14년간 152호가 발간된 대중 잡지이다. 『삼천리(三千里)』의 지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당대의 쟁점이나 국제 정세,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설과 기사들이고, 둘째는 종합 오락지로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십적인 기사들, 셋째는 시, 소설, 문예, 비평 등 문학 분야의 글이다. ③ 1905년 12월 30일 대한제국 경무청에서는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우측통행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일제 강점기인 192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하였다. ④ 1925년 프로 문학(KAPF)이 등장하였다.

【정답】 ②

11. 375 ~ 545 ~ 771년의 사실

(가)는 375년(근초고왕 30)에서 545년(진흥왕 6) 사이의 사실, (나)는 545년(진흥왕 6)에서 771년(혜공왕 7) 사이의 사실이다. ② 황룡사 9층 목탑은 643년(선덕여왕 12)에 건축되었다.

① 충주(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재위 413 ~ 491) 대에 세워졌다. ③ 이문진의 『신집』 5권은 600년(영양왕 11)에 편찬되었다. ④ 석굴암은 751년(경덕왕 10)에 창건되었다.

【정답】 ②

12. 조선 시대의 궁궐

④ 양궐 체제(兩闕 體制)란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法宮)과 재난을 당했을 때 거처를 옮겨갈 수 있는 별궁인 이궁(離宮)을 의미한다.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은 궁궐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① 조선의 궁궐은 경복궁(태조) → 창덕궁(태종) → 창경궁(성종) → 경운궁(선조) → 경희궁(광해군)의 순서로 건축되었다. ② 창덕궁 북쪽에 있는 한국 최대의 정원(庭園)을 비원(秘苑)이라 하는데, 후원(後苑), 북원(北苑), 금원(禁苑)이라고도 불렀다. 뒤에 있다고 해서 후원(後苑)이었고, 북쪽에 있다 해서 북원(北苑)이었으며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해서 금원(禁苑)이라 하였다. ③ 조선 시대는 문무백관의 벼슬을 높고 낮음에 따라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품계를 나누었다. 그 품계에 따라 돌에다 품계를 새겼으며 그것을 궁궐의 정전(正殿) 앞의 마당에 품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다. 나라의 조회나 하례, 국왕탄신 등 중요한 행사시에 문무백관이 정렬할 때 자신의 벼슬 품계석(品階石) 앞에 정렬하였다. 정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동쪽인 오른쪽에는 문관(文官), 왼쪽에는 서쪽인 무관(武官)이 정렬하였다. 경복궁 근정전(景福宮 勤政殿), 창덕궁 인정전(昌德宮 仁政殿), 창경궁 명정전(昌慶宮 明政殿), 덕수궁 중화전(德壽宮 中和殿)에 품계석이 세워져 있는데 좌우 12개씩 24개가 놓여 있다. 1품에서 3품까지는 정(正)·종(從)으로 구분하여 6개가 세워져서 문무백과 12개의 품계석이 세워졌고 4품에서 9품까지는 정·종을 구분하지 않고 6개씩 12개가 세워졌다.

【정답】 ④

13. 좌우입직 위원회의 활동

③ 미(美) 군정은 초기 좌우합작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1947년 3월 트루먼독트린을 발표하고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좌우합작 위원회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였다.

①, ②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 있자 중도 좌익의 여운형과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④ 1947년 10월에 발표된 좌

우합작의 7원칙은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하여 작성되었다.

【정답】 ③

14. 조선 시대의 저서(著書)

㉠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 백호 임제가 지은 한문 단편소설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元昊)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원호가 어느 가을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장강(長江) 연안에서 왕(단종)을 모시고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최덕지(崔德之) 등이 모여 앉아 강개시(慷慨詩)를 화답하는데 유응부(兪應孚)가 뛰어들어, 썩은 선비들과는 대사(大事)를 도모할 수 없다고 탄식하며 검무(劍舞)와 함께 비가(悲歌)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깬다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금기였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연 중에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종회는 『동사(東史)』를 저술하여 단군 조선의 계승 왕조로 부여와 고구려를 강조하였고 만주에 대한 회복을 강구하였다.

㉢ 『칠정산』은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서로 내편은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는 『박통사(朴通事)』의 원문에 한글로 중국어의 독음을 달고 언해한 책으로 중국어 학습서이다. 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10년 만에 돌아와 역관(譯官)으로 활약했던 강우성(康遇聖)이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은 『첩해신어(捷解新語)』이다.

【정답】 ②

15.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 단체

1923년부터 만주 일대에 설치된 자치정부인 삼부는 압록강 연안의 참의부, 지린과 봉천을 비롯한 남만주 일대를 관할한 정의부, 대한독립군단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 군정서 등의 북만주 항일 단체들이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통합·발족한 신민부이다. 삼부 통합 운동의 결과로 1928년 혁신의회, 1929년에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은 분화된 연합 전선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①

16.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변화

㉠ 1차 나선 정벌은 1654년(효종 5)에 변급, 2차 나선 정벌은 1658년(효종 9)에 신유 외 200여 명이 출전하였다. ㉡ 윤휴(1617 ~ 1680)는 청에서 삼번의 난(1671 ~ 1683)이 일어나자 북벌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숙종 38), ㉣ 안용복의 일변 원정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이 된다.

【정답】 ②

17. 조선 세조(재위 1455 ~ 1468) 대의 사실

국왕은 6조를 직접 장악, 공신 발탁(좌익공신), 진관책임자의 명칭 개정 등을 통해 세조 때의 사실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사병 혁파는 태종(재위 1400 ~ 1418),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이 삼군부가 되면서 정부와 군무를 분리한 왕은 정종(재위 1398 ~ 1400)이다.

①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의 난은 1467년에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인물이 유자광과 남이 등이다. 세조는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③ 조선의 태조 연간에는 모든 국둔전이 폐지되었고 정종 때에 포진(浦鎭)의 군인에 의해 경작되는 둔수군(屯戍軍) 둔전만이 복설되었다. 그러다 점차 국방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군자(軍資)의 확보가 요구됨으로써 국둔전이 다시 설치되었는데, 설치·경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 치폐(置廢)를 거듭하였다. 세조 때에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

방 군사 조직을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재편성하고, 중부 이북의 13곳에서만 설치·운영되었던 국둔전을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한편, 관둔전에서도 국둔전과 비슷한 폐단이 나타나 치폐를 거듭하다가 규모와 관노비에 의한 경작을 규정함으로써 세조 이후에는 항구화되었다. 이렇게 치폐를 거듭한 뒤 세조 이후에는 국둔전·관둔전이 모두 설치, 운영됨으로써 조선의 둔전제는 제자리를 잡았다. ④ 시종 대에 필요성이 제기된 『국조보감』이 처음 편찬되었고, 세조 때 시작한 『동국통감』은 성종 대에 완성되었다.

【정답】 ②

18. 신문왕(재위 681 ~ 692)의 업적

흙돌·흥원·진공 등을 통해 즉위년 교서를 발표한 왕은 신문왕임을 알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 선발 제도인 독서삼품과(독서출신과)는 원성왕 4년인 788년에 시행되었다.

① 국학은 통일 신라의 중앙 국립 교육 기관으로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되어 12관등 대사 이하부터 관등이 없는 귀족 자제들이 입학하였고 수업 연한은 9년이었다. ② 신문왕은 진골 귀족의 경제·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687년 관료전을 지급하고 689년에 녹읍(祿邑)을 폐지하였다. ③ 신라는 통일 후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신문왕 5년(685년)에 전국을 9주로 정비하였다. 옛 신라와 가야의 땅에 사벌주(상주)·삼랑주(양주)·청주(강주)를, 백제의 옛 땅에 웅천주(웅주)·완산주(전주)·무진주(무주)를, 고구려의 옛 땅에는 한산주(한주)·수약주(삭주)·하서주(명주)를 설치하였다. 주의 장관은 문무왕 때인 661년에 군주에서 총관으로 개칭하였고 원성왕 때에 도독으로 개칭하였다. 주 밑에는 군(태수)과 현(현령)이 있었고, 현 밑에는 촌(촌주)과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이 있었다. 5소경 제도는 백제, 고구려를 정복한 신라가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문왕 때 9주와 함께 마련되었다. 5소경은 중원경(충주), 북원경(원주), 금관경(김해),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으로 이곳에는 주로 정복된 국가의 귀족과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정답】 ④

19. 현대사의 시건 전기

㉠ 1960년 4·19혁명 → ㉡ 1961년 5·16 군사 정변 → ㉢ 1972년 10월 유신 → ㉣ 1976년 3·1 민주 구국 선언 →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①

20. 발해(698 ~ 926)

㉠ 698년 대조영은 진(震)을 건국하였고 713년 국호를 발해로 변경하였다. 당은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임명하였다.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신을 고려국왕 대흥무로 표현하였다. ㉡ 발해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바둑판식으로 계획된 도시였다. 상경성은 주작대로, 내성·궁성·외성으로 구성되었고 불상, 온돌 장치, 막새기와 등 발해의 문화유산이 출토되었다. ㉢ 격구(擊毬)는 원래 페르시아 지방에서 형성되어 인도, 중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것이 발해, 후삼국으로 유입되었다. 격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譯史)』에 나타나는데, 발해 사신 왕문구(王文矩) 일행이 889년 일본에 가서 격구를 하였다 한다. 당시 발해에서는 격구가 매우 성행하였으며, 일본에 직접 전파하기도 하였다. ㉣ 『발해고(渤海考)』(유득공, 1784년)의 물산고(物産考)에 따르면 태백산(백두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 환도의 오얏, 악유의 배, 부주의 은 등이 발해의 주요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정답】 ④